

‘특 쏘는 알싸한 맛’ 영산포 흥어축제 열린다

12~14일 영산강 둔치공원 일원서 숙성 흥어 대향연
흑산도흥어 배 입학 퍼포먼스...체험·경연·문화 다채

‘코끝을 특 쏘는 알싸한 그 맛’, 전라도 대표 음식 숙성 흥어의 대향연이 나주시에서 펼쳐진다.

나주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15회 영산포흥어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영산강 푸른 물결과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영산강 둔치공원 일대를 배경으로 3일 간 다양한 체험·공연 프로그램 선보인다.

영산포 흥어축제는 흥탁, 흥어회, 찜, 흥어애국 등 남도의 별미로 정평이 난 숙성흥어를 소재로 15회째 이어오고 있다.

6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산포 흥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전해져온다.

고려 말 당시 왜구의 침략을 피해 육지로 이주한 흑산도 인근 주민들이 5일 또는 보름 이상 걸려 지금의 영산포에 도착해 보니 부패가 심해 버려진 다른 생선과는 달리, 폭삭은 흥어는 먹어도 뒤탈이 없고, 먹을수록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어 즐겨먹기 시작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나주가 본관인 정약전이 집필한 ‘자산어보’에서도 ‘나주 사람들은 흥어를 삭혀서 먹는다’고 기록돼있는 만큼 영

산포 흥어는 유래가 깊다.

이번 축제에서는 ‘흥어 예쁘게 썰기’, ‘흥어 시식 왕 선발’, ‘흥어 탐쌍기’, ‘흥어 깜짝 경매’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과 ‘나주시민가요제’, ‘나주시립국악단&합창단 공연’, ‘영산포 선창 콘서트’,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12일 개막식 30분 전에는 주민들이 영산포 선착장에 도착한 황포돛배에서 흥어를 옮기는 ‘흑산도 흥어 배 입학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축제의 흥을 돋을 예정이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흥어 연 만들기, 솜사탕 만들기, 비눗방울 만들기, 흥어 전시관 운영, 천연염색 체험 등 상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보 개방에 따른 강 수위 저하로 다야



제15회 영산포흥어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산강둔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나주시 제공

선착장으로 이전·운영했던 황포돛배도 흥어의 거리에 위치한 영산포 선착장으로 재이전해 축제장을 비롯한 영산강

일대 유람을 개시한다.

김민주 영산포흥어축제추진위원장은 “봄날의 나른함과 지루함을 확 날려

버릴 수 있는 이번 축제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꼭 방문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함평에 전남교육박물관 건립
2021년까지 100억원 투입

전남교육박물관(가칭)이 함평 엑스포공원에 건립된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교육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함평 엑스포공원이 최종 입지로 확정됐다.

박물관 부지는 1만4,000㎡, 건축 총면적은 5,000㎡ 규모로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전남도교육청에 설립제안서를 제출, 광역교통망이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함께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우수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어필했다.

최근 화제를 모은 황금박쥐 조형물과 1,565종 6,324점의 생활유물 무상임대 및 보험료 지원 등도 약속해 평가분야 모두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번에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

자연생태관 포함 여부 등 세부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협상이 진행될지 남아있으나 이윤행 군수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가 있는 만큼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것을 보인다.

이 군수는 “전남교육박물관의 함평 건립은 전남교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도교육청과 수시로 만나 협의하며 상호 이점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박물관은 사라져 가는 전남 교육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교육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취지로 건립이 추진됐다.

/함평=윤예중 기자

영광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관광객 유치·관광자원 홍보

영광군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9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쳤다.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코엑스가 주관했으며 영광군은 전남도와 공동 홍보관을 운영해 마케팅 비용 절감과 공동 홍보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냈다.

영광군은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한 ‘백수해안도로’, 세계최대 상사화 군락지를 품은 ‘불갑사 관광지’를 비



영광군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영광군 제공

롯한 불거리와 영광굴비, 모깃잎송편, 찰보리쌀, 전일염 등 풍요로운 먹거리와 살거리를 홍보했다.

또한 ‘상사화축제’, ‘법성포단오

제’ 등 축제와 ‘이모빌리티엑스포’와 같이 즐길 거리도 소개해 오감만족 문화관광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알렸다.

/영광=곽용순 기자

전입 장려금·결혼축하금·유공기관 장려금 등

장성 인구 늘리기 조례 마련

장성군이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인구 증가를 위해 지난해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지원 조례 내용은 전입장려금을 비롯해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인구 늘리기 유공기관장려금 지원 등이다.

“전입장려금”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장성

에 전입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한 세대에 총 3명까지 지원하며 장성에서 근무하는 군인 또는 지역업체 임직원의 경우 1인당 1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입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입지원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군인이나 기업

책임직원은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인구감소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인구수가 조세나 국고보조금 등 지방행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인구 증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늘리기 유공기관 기업단체에는 장려금 신청 실적 기준에 따라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면서 “전입 장려금이 인구 증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20여 쌍의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무안 사전감사로 예산 12억 절감

사업 시행 전 일상감사...예산낭비 요인 제거

무안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주요사업을 시행하기 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해 총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사업에 대해 발주 전 원가산정과 품질확보 적절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군은 대형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사업 등 총 56건에 대해 수량과다 산정,

시공방법 변경, 단가·요율 착오 적용 등의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비의 6%에 해당하는 12억원을 절감했다.

또 실거래가격 미적용, 설계도서의 단산오류, 인건비 계상오류 등 잘못 처리된 사항 등을 바로잡아 3,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한편, 무안군은 각종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담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가졌다.

/담양군 제공

담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설명회

담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운영방향과 유사정책 비교를 통한 제도 발전방향 제시와 함께 담

양식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군은 2020년 예산편성에 반영될 총 55억원의 예산 내에서 군정책사업과 지역참여사업으로 분류해 운영하며 주민과 지자체간 쌍방향 소통 창구로 삼을 계획이다. /담양=장동원 기자

클릭! 고향 소식



무안난연합회 승달장학금 기탁

무안난연합회는 최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무안승달장학회에 전달했다.

임인수 회장은 “제16회 황토골 난꽃축제에서 판매한 난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난연합회는 지난해에도 장학금을 기탁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영광 노르웨이 대학생 펌투어

영광군은 최근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전수를 위해 군을 방문한 노르웨이 하드란드플케호그스 대학교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펌투어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동양문화가 생소한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멋과 맛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펌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담양 대전면 자원봉사회 빨래 봉사

담양군 대전면 자원봉사회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이불빨래 봉사

힘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담양=장동원 기자